

### 이홍재의 세상만사

## 야권 통합의 수혜자는 누구?



논설고문

'1 더하기 1은 귀요미' 지난해 가수 하리가 불러 크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 '귀요미 송'이다. '귀요미'는 '귀여운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치기로 했다. 경천 동지(驚天動地). 과연 이들의 '깜짝쇼'는 국민들로부터 귀엽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은 좋은 것 같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고 있다. 당장 지지율이 대폭 올랐다. 안철수의 자진 철수(撤收)로 인해 김한길은 이제 한길(큰길)로 곧장 내달릴 수 있게 된 것인가.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고들 한다. 두 당이 몸을 섞기로 하자 질투심에 불타는 이들이 있다. 당연히 새누리당 사람들이다. "50℃의 물을 섞는다 해서 100℃가 되지 않는다." 여당 대변인이 한 말이다. 기대했던 어부지리(漁夫之利)가 무산됐으니 뒤투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일 것이다. 보수언론도 몹시 기분이 상했다 보다.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급조 신생 정당과 같' 깊고 깊해

매년 제1야당의 야합'이라며 뒤뜰린 속내를 드러낸다. '야합'(野合)이란 원래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야당끼리 합친다는 점에서는 '야합'(野合)이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 DJ 유훈 '열에 일곱을 내 줘라'

"김한길은 제1야당을 팔고 안철수는 새정치를 팔았다." 통합 발표가 있고 나서 어느 신문에 난 기사가 눈길을 끈다. 멋진 표현이다. 그러나 호남 사람들 중에는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이가 많은 듯하다. '김한길은 새정치를 사고 안철수는 제1야당을 샀다'고.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사뭇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열에 일곱을 내줄 자세로 야권 단결에 임하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유훈(遺訓)이다. 그렇다면 제3지대 신당 창당 측은 당 대 통

합으로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이는 누가 될까. 그 첫 번째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권의 거물급들(정몽준·김황식)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야권 분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니까.

좌고우면(左顧右盼)하던 박지연 의원이 전남 도지사 출마로 돌아선 것도 합당이라는 정치 지형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존에 이낙연·주승용 의원 등이 경쟁적으로 접촉해 온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이 이제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미리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두 의원으로서의 정치란 게 참 비정하다 느낄 만도 하겠다.

어찌 됐든 그동안 당 대표와 전남도지사 도전 사이에서 꽃놀이패를 즐기던 박 의원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새로운 체제의 등장으로 중앙당에서의 역할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 행이라는 보다 쉬운(?) 보이는 길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과연 끝까지 백의중군할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광주 시장 선거도 큰 관심사다. 경선에서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간의 승자가 본선에서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과 대결하는 구도가 이제는 세 명 모두 경선에서 맞붙는 '경선 삼국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당원 확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였던 강 시장도 달라진 구도 속에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 한 치 앞 알 수 없는 경선 삼국지

게다가 '한 지붕 두 가족'을 이루게 되는 신당 안에서 앞으로 치열한 지분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면 후보 선출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다만 세부 경선 방안에서는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을 배려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지금이야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은밀한 묵약(默約)이 있을 수도 있다. 가령 합당의 조건으로 새정치연합 측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양보하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주시장 자리를 양보 받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전략공천이 현실화된다면 강(姜)과 이(李) 중에 한 사람쯤은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되든 결국 합당의 최대 수혜자는 윤(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나 배심원단 투표 등으로 한도 뽕뽕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현직 프리미엄의 강 시장이나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이 의원 그리고 제2의 박원순을 지지하는 윤 위원장 등 세 사람 모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 선거, 뭐 두렵게 생각할 것 있나? 재미있게 지켜보면 되는 거지.

## “우이산호 기름유출은 어처구니 없는 인재”

이주영 해수부 장관, 여수 신덕마을 찾아 피해보상·재발방지 약속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주의를 면밀히 기울였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과 이 사고로 큰 피해를 본 신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배의 속력이나 운항 조건, 승무원이 보유한 업체의 근무 상태 등을 보면 상당히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난 인재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도선사 제도 개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사고 피해 보상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이어 여수엑스포장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수·광양지역 수산인과의 간담회에서는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수산물 판매 부진 등 2차 피해 대책,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정부 차원의 환경 평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경남 남해로 이동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6일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 회의. 왼쪽부터 전북일보 권순택, 경남신문 이종구, 매일신문 이상훈, 대전일보 김윤석, 경인일보 박현수, 강원일보 최병수, 부산일보 김진수, 광주일보 기현호, 제주일보 김승중 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하태행 기자

### 한국지방신문협, 6·4 지방선거 공동 여론조사 실시키로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실시·보도하기로 협의했다.

6일 경인일보 신사옥에서 9개 지방신문사 편집국장단 회의를 가진 한신협은 회원사 간 뉴스룸 운영을 통해 여론조사 및 선거 보도 기획과 더불어 지역별 민심동향, 선거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등의 출입과 전국 언론사의 신문발행부수를 확인·공표하는 한국 ABC협회와의 업무 문제 등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사는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한신협이 전국 각지에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일보=강기정 기자

## 전남복지재단 개원식 “모두가 건강한 ‘복지전남’ 노력”

보편적 복지 지원 강화 다짐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 6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재단 이사장인 박준영 도지사와 김재무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복지 분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복지재단은 향후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을 도모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남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박준영 도지사는 개원식에서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수요자의 자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진 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 채용을 완료했고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복지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안공항~상해 주말여행 쉬워진다 항공편목→금요일 변경, 주4회 운항

전남도는 6일 “무안공항~상해 간 항공편을 운항하는 동방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목요일 운항 노선을 금요일로 옮겨 월·수·금·토 주4회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금요일 출발해 월요일 도착하는 주말 포함 3박4일 일정의 여행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월요일에 출발해 금요일에 도착하는 항공노선을 이용, 상해 도착 후 제3국을 연결하는 관광상품과 동남아 신혼여행 및 기업체 해외문화체험 등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개항 이후 최대인 13만3000명이 이용했으며 올 들어 2월 말까지 2만2295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88명)에 비해 31% 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